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 자치경찰 제도 시행 1년 맞아

“자치경찰권 강화해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자치경찰 시행 1주년을 맞아 22일 서울시청에서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현태 위원회협의회 회장(경상남도 위원장),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자치경찰제 주요 현안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 △회장을 비롯한 제2기 임원진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정원 반영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반영을 위한 창구 마련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조속한 협력을 촉구하였다.

협의회는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정원 반영을 주장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정원 외 경찰관의 파견종료가 오는 8월 31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위원회별 업무 공백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한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직무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한 정원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통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 시행 1주년을 맞아 22일 서울시청에서 정기회를 개최했다.

현장의견 반영 창구 마련 등 공동건의문 발표 제도 이원화 지방자치경찰법 별도제정 등도 강조

수립 시 행안부는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과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통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

지로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을 요하지 않는 즉시 실천 과제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 확보를 위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 직제(현 112종 합상형실 소속)를 생활안전과로 환원 △자치경찰위원회 내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으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중점 실천과제로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경찰법 별도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조항 신설 등으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논의도 자치경찰제를 그 출발점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시한 협의회 공동건의문에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이 제시한 제도개선안 대부분이 채택돼, 진정한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역할을 북돋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제2기 협의회 임원진으로 회장은 김해배 서울자치경찰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부회장은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호남·제주권), 송승철 강원도 자치경찰위원장(수도·강원권), 강영욱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충청권), 김태근 울산자치경찰위원장(영남권), 감사로 남기현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김경수 기자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47.6% · 부정 47.9%

尹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

알앤씨 여론조사

연령별 20·6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부정’ 우세 지역별로 충청·호남서 부정평가가 더 높아

국힘 지지율도 동반 급락 민주당과 격차 줄어들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알앤씨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7.6%, 부정 평가는 47.9%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4.6%였다.

긍정 평가는 전보다 4.9%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4.9%포인트 상승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30대에선 부정 49.1%, 긍정 46.2%로 부정 평가가 다소 높았다. 4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62.9%로 긍정(33.4%)의 배에 가까웠다. 50대(부정 50.1%, 긍정 45.8%) 역시 부정평가가 많았다. 반면, 18세 이상 20대에서는 49.4%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48.4%)보다 약간

높았으며 6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57%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3.3%), 대구·경북(55.9%), 강원·제주(48.7%), 서울(49.6%), 경기·인천(50.2%)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반면 전남·광주·전북(69.5%), 대전·충청·세종(52.4%)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알앤씨는 주식 하락세와 고물가 등 경기 침체 불안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급락, 국민의힘은 전보다 5.9%포인트 떨어진 44.3%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1%포인트 하락한 29.6%였다. 양당간 격차는 지난주 19.5%포인트에서 14.7%포인트로 4.8%포인트 줄었다.

정의당은 3.6%, 기타 정당 3.1% 지지정당 없음 18.2% 잘 모름은 1.2%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7%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치를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뉴스1

전북도 자치경찰위 ‘메신저-폴’ 워크숍

하반기 운영방안 등 토의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22일 완주군 소재 경천애인 농어촌인성학교에서 전국 최초 청년 정책지원단인 메신저-폴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전반에 걸쳐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도내 경찰행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 청년 정책지원단 ‘메신저-폴’을 운영하고 있다.

메신저-폴은 전달지라는 뜻을 가지며 정책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의미이다. 지난 2021년 발대하였으며,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대면 회의가 어려워져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첫 만남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태형 자치경찰정책과장과 각 대학 지도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민의 특색 있는 치안 서비스 발굴을 위한 메신저-폴의 역할과 하반기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메신저-폴 신입 단원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워크숍을 수여했으며, 자치경찰 골든벨을 통해 관련 지식을 쌓고 단원 간 친밀감을 형성하여 추후 대학 간 양방향 소통으로 다양한 정책 발굴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메신저-폴은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전용 게시판을 활용해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 SNS 활용 자치경찰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기업·지역사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치안리빙랩 사업과 연계하여 치안정책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민의 맞춤형 치안서비스 발굴을 위해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할 예정이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메신저-폴의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며 청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자치경찰의 핵심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6월중 학이시습의 날에서 송하진 지사는 청원들과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갖고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청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퇴임 앞둔 송하진 도지사, 소통의 장 마련

민선7기 마무리 ‘6월 중 학이시습의 날’ 진행 신규 청원부터 부서장까지 120여명과 대화 ‘업무 지식 등 학습 도정발전 밀거름 되도록 최선을’

송하진 도지사가 민선 7기를 마무리 하며, 청원들과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도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는 22일 “6월 중 학이 시습의 날”을 개최하여 송하진 도지사와 MZ 세대 신규 직원부터 부서장까지 도청 직원 12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도청 현안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도청 직원들이 퇴임을 일주일 앞둔 송 도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이시습의 날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8년간 전북 도정을 이끌어온 송하진 도지사에게 △도정 성과, △전북

미래의 모습, △퇴직 이후의 계획, △인생의 철학, △공공직자의 자세, △MZ 세대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등 다양한 질문을 하며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송 지사는 퇴직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42년간 평생을 공직 생활을 해왔지만 퇴직 이후 일반인으로 살게 될 새로운 삶에 대해 무척 설레고 기대가 크다”며,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 현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이룬 가장 큰 성과와 직접 마무리 짓지 못한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송 지사는 “전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고, 한편 “내년 8월 개폐가 예정되어 있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최근 조직 내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MZ 세대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는 “MZ 세대에 X세대는 물론 Y세대 모두 똑같다고 보며,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화합하지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조화롭게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들과 즐겁고 뜻깊은 소통의 장 행사를 마친 송하진 도지사는 “오늘 행사의 타이틀인 ‘학이시습’은 민선 6기 시작하면서 만든 것인데, 논어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배우고 때로 익힌다는 의미이다.”며 “앞으로 직원 여러분이 업무 관련 전문지식은 물론 일반 지식을 꾸준히 학습해서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尹정부 경제정책, 별나라에~”

민주, 시민금융지원대책 간담회서 “소상공 등에게 이번 금리 폭등, 일상 불안 넘어... 정부 위기 대응 비관 ‘불법 대출 정황 적발...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 확대를 우려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용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위한 간담회에서 “코로나 위기로 빚을 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이번 금리 폭등은 일상의 불안을 넘어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은 인연, 내내, 무능의 결정판”이라며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책은 전무한 반면 법인세, 종부세, 주식 관련 세금 등 부유층에 대한 감세만 쏟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당장 점심값 고민에 근심이 있는데, 민생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별나라에 있는 듯하다”며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쌓여 국가 전체 위기로 내닫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인 송기현 의원은 “최근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불법으로 대출하는 정

황이 적발되고 있다”며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 금융 지원 확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같이 뜻을 모아 서민들의 안정적인 금융 활동을 위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 매칭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여러 기관의 출연에 따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자선용자를 위한 정책 금융 수단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 (진흥원이) 독자적인 자선용자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실제 취약계층 내지 한계계층의 규모가 파악돼야 하지만, 그들을 위한 상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이들)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진흥원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데이터를 가지고 실무자, 인재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뉴스1

도의회 교육위, 3개 안건 의안심사 실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22일 제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3가지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를 실시했다.

제1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의안심사는 전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를 포함해 “전북도 교육청 교관참모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전북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상정돼 심의·의결했다.

김경수 부위원장(익산 2)이 발의한 전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

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사무관리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 6)이 발의한 전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매년 평균 0.24%의 소수 인원이 대상이 되는 모범공무원의 선발 기회를 확대해, 사기 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골자로 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마지막까지 많은 바 소명을 다했으며, 함께 노력했던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함을 표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